

# 尹, 인구 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 출산 가구에 주택 우선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페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 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신설해 출산·육아·휴가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 새로운 가정에 안전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입양이 어려운 아이를 위해 가정 위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R&D글로벌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국힘 "법사위원장 1년 씩" ... 민주 "거부권 안쓰면 검토"

### 여 추경호 원내대표 추가 제안에 야 박찬대 원내대표 "진정성 없다"

1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를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1987년 이후로 여당이 계속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운영위' 절충안은 지난 1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거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초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라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상대 당과 협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제안 배경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진행 중이지만 1년 뒤에는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며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당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여당도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 (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한동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차기 대표 출마 선언"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밝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차기 대표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라고 19일 한 전 위원장의 측근인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그거(출마)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선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마 메시지에 한 전 위원장이 공격받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대답을 해야 할 것 같고,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갈지,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이갈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씩이라도 담아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장 의원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어대한"은 민심이 모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은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한 데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등판하려는 이유에 대해 "당을 재건하고 혁신·쇄신해서 거대 야당과 싸워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당신밖에 없다는 게 주류 의견이고 민심이라면, 거기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도 정치인이 책임지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